

익산시, 여름철 폭염 대응 강화

9월 말까지 폭염대책 기간 진행... 폭염 대응 특별팀 TF 운영
그늘막·무더위 쉼터·살수차 가동 등... 시민 피해 최소화

익산시가 여름철 폭염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익산시는 오는 9월 30일까지를 폭염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폭염 대응 특별팀(TF)'을 운영해 관련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폭염 대응 특별팀은 △총괄상황반 △건강관리지원반 △시설관리반 3개반 52명으로 구성됐다.

특별팀은 시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유관기관과 긴밀한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폭염 대응 상황을 관리하고 있다.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대응도 진행 중이다. 보행자가 많은 주요 사거리에는 스마트 그늘막 21개 포함

해 총 173개의 그늘막이 가동에 들어갔다.

아울러 경로당과 금융기관 등 냉방 기기가 마련된 무더위 쉼터 501개소도 상시 개방 중이다. 폭염특보 발효 시에는 무더위 쉼터 시간을 연장해 효율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폭염경보 시에는 도로 위 살수차를 운영해 도심에 열기가 갇히는 현상을 최소화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을 위해 버스 정류장에 열음과 생수를 비치해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독거노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시민 등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관리에도 힘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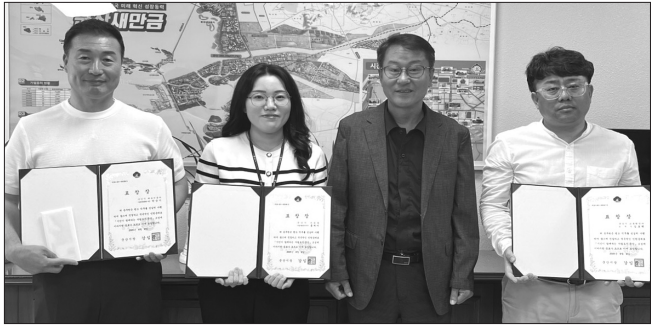
이 과정에서 재난에 취약한 이웃을

돕는 '재난도우미'가 큰 역할을 한다. 재난도우미는 주민을 잘 아는 이·통장과 생활지원사, 자율방재단, 방문건강관리간호사 등으로 구성됐으며, 안부전화와 방문 관리를 통해 폭염 취약계층을 보호한다.

이 외에도 재난안전문자와 마을방송 등을 활용해 시민들에게 행동요령을 수시로 안내하고, 현장 근로자에 대해서도 폭염이 심할 경우 야외 작업 자체 및 종단을 권고해 인명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기후 변화로 인해 폭염이 더욱 잦아지고 강해지고 있는 만큼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며 "작은 위험도 놓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시민 모두가 건강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군산시, 상반기 친절 민원담당자 시상

체육진흥과 박상기·수송동 홍세미·교통행정과 김호현 주무관

군산시가 2025년 상반기 친절 민원 담당자를 선발해 시상식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올 상반기 친절공무원은 2024년 11월부터 2025년 4월까지 기간에 추천 받은 총 33명 중 △체육진흥과 박상기 주무관 △수송동 홍세미 주무관 △교통행정과 김호현 주무관이다.

먼저 체육진흥과 박상기 주무관은 대야 국민체육센터 내 수영장 운영 업무를 담당하며 신속하고 적극적인 민원 처리와 친절하고 세심한 태도로 주민들에게 안전한 체육센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 온 것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수송동 장애인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홍세미 주무관의 경우 민원인의 복지 서비스 신청과정을 끝까지 쉽고 자세하게 안내해 공직사회 친절행정 실현에 기여하였다.

교통행정과 김호현 주무관은 출퇴근 길 및 야간, 휴일에도 주차 질서 계도를 하였고 불법 주정차단속에 따른 민원인의 거센 항의에도 친절하게 응

대하며 민원을 최소화해 군산시 선진 교통문화를 정착한 공로로 선정됐다.

시는 9일 시상식을 열어 친절공무원 3명에게 표창장과 군산사랑상품권(20만원) 수여와 함께 '김영민 부시장과의 간담회' 자리를 마련했다.

간담회에서는 민원 담당 공무원들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노고를 격려하는 한편 민원 처리 과정의 애로사항 및 개선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김영민 부시장은 "이번 친절 민원 담당자 수상을 통해 앞으로의 정기적인 소통채널의 토대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동시에 우수 민원 담당자 포상제도를 통해 민원 담당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민원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군산시 친절공무원은 군산시청 홈페이지 '칭찬합시다'와 칭찬엽서, 유선등을 통해 시민과 동료 직원이 추천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1차 사전접시의와 2차 심사를 통해 반기별 3명씩 선정하고 있다. /군산=이재춘 기자

익산시, 감염병 예방수칙 당부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예방접종 권고·일상 속 예방수칙 강조

익산시는 여름철 코로나19 재유행 가능성에 대비해 10일 효유기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를 적극 당부했다.

최근 홍콩, 중국, 대만 등 인근 아시아 국가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기온

상승과 함께 밀폐된 실내활동이 늘어나면서 재유행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시는 △기침 예절 실천 △호르는 물에 손 씻기 △실내 자주 환기하기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 만지지 않기 △호흡기 증상 시 즉시

의료기관 방문하기 등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층, 생후 6개월 이상 면역저하자,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6월 30일까지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연장 시행하고 있는 만큼, 적극적인 접종 참여를 권고했다.

이진우 보건소장은 "이번 여름 재유행에 대비해 지속적으로 일상 속 예방수칙을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군산시, 청렴도 향상 2차 추진협의회 개최

고위직 선도 청렴군산 실현 위한 다양한 방안 논의

군산시는 제2차 '군산시 청렴도 향상 추진협의회(위원장 강임준, 이하 추진협의회)'를 열어 '2025년 반부패 청렴도 향상 추진계획'에 대한 공유 및 개선전략을 논의했다고 10일 밝혔다.

현재 시장이 주재하는 추진협의회는 부패 취약 분야 개선을 위한 정책추진을 총괄하며, 부시장 주재 실무추진단이 협의회에서 나온 시책 추진 및 이행점검을 전담하고 있다. 시는 이를 통해 청렴 정책이 계획부터 실행, 점검의 유기적 연결 구조로 순환되도록 할 계획이다.

지난 9일 열린 제2차 회의에서 군산시는 올해 전략 과제 중 하나인 '고위직이 선도하는 청렴 군산 구현'을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었다.

시는 이미 지난 3~4월에 두 차례 회

의를 개최하고 부패 취약 분야 진단 분석을 통한 2025년 반부패·청렴도 향상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우선 2025년 중점 개선전략의 하나인 보조금 분야 청렴도 개선을 위해, 6~7월에 군산시 보조금 지원사업의 70%를 차지하는 농업·문화관광·복지사업 담당 국별 보조사업자 및 보조금 담당자와 간담회를 개최한다.

시는 간담회를 통해 불만 사항 청취 및 실무적 타당성을 검토한 후 개선방안을 마련해 전파할 방침이다.

아울러 분야별 특성에 맞는 보조금 사업 인계인수서 작성, 예산목별 집행 가이드 제작과 대상자 교육을 한다. 교육을 통해 담당자의 전문성 강화와 속도감 있는 사업추진으로 민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다음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행정을 위한 희망보직제 점수제 시행과 반

영물 공개방안이 논의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전보 및 인사 고충 심사제 방안 운영도 이야기됐다.

전보 제한 직원 중 부득이한 경우 인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전보를 실시하는 방안과 인사제도 설명회 관련 제안도 나왔다.

시는 1~2차 협의회 내용을 바탕으로 청렴 문화의 대내외 전파전략을 현실화하기 위하여 군산시의회, 군산시 공무원노조, 군산시 공무원직노조, 시민단체 등과 협약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외에 자유로운 직장 분위기 조성 과 노동조합과의 건전한 조직문화 협약을 통한 '간부 모시는 날 근절', '업무지시 행동규범' 등을 제정하고 공포하는 방안도 함께 이야기되었다.

회의가 끝난 후 강임준 시장은 "2025년 세 가지 중점 개선전략에 대하여 실효성 있는 실행방안을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라며, "앞으로 논의된 방안에 대하여 지속 실행하고 점검하여 청렴 군산 실현으로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겠다."라고 전했다.

/군산=이재춘 기자

지역 소식통

익산시의회, 제270회

제1차 정례회 개최

익산시의회(의장 김경진)가 10일 제270회 제1차 정례회를 개최하고 오는 24일까지 15일간의 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익산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장경호 의원)을 비롯한 조례안, 본예산(1조8108억원)보다 918억원(5.1%) 증액된 1조9026억 규모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 등 총 32건의 안건을 심의하게 된다.

또한 회기중 위원회별 현정방문과 23일 예정된 제2차 본회의에서는 시정질문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경진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정례회는 2024년도 결산안과 올해 첫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는 중요한 기회"라면서 "지난해 예산이 적법하고 합리적으로 집행됐는지 진단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시정을 요구하고 또 추경예산안이 넉넉지 않은 재정으로 마련된 만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편성됐는지 꼼꼼히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군산시, 청년정책 숲품

영상 공모전 개최

군산시가 청년들의 시선으로 청년정책 참여 경험을 담은 콘텐츠를 발굴하고자 '2025년 군산시 청년정책 숲품 영상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청년의 삶, 정책과 마주하다'를 주제로, 군산시 청년정책에 참여했던 경험 또는 현재 참여 중인 사례를 1분 이내 영상으로 제작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영상에는 청년들이 겪은 변화, 정책 참여 동기, 정책과의 만남 등을 자유롭게 담을 수 있으며, 브이로그(VLOG)·인터뷰·상황극 등 다양한 숲품 형식으로 표현하면 된다.

접수는 7월 4일 오후 6시까지 등기우편, 직접 방문, 또는 전자우편(rhks453@korea.kr) 접수 중 선택할 수 있다. 전자우편 접수는 마감 시한까지 도착 완료해야 하며, 방문 및 우편 접수 시 USB를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군산=이재춘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전주매일 캠페인

일제강점기 수탈의 상징

구 군산세관 본관

국가지정 사적 제545호인 구 군산세관 본관은 1908년 단층으로 지은 건물이다.

이 건물은 군산항을 통해 드나들던 물품의 관세를 거두었던 곳이다.

1899년 군산항을 개방한 이후 인천세관 관할에 있던 군산세관은 1906년 인천세관 군산지사를 설립한 이후 이 건물을 완공했다.

붉은 벽돌을 사용해 건물의 외관을 꾸미고 목조를 사용, 내부를 장식했으며, 또한 슬레이트와 동판으로 지붕을 만들고 그 위에 세 개의 뾰족한 탑을 세웠다.

구 군산세관 본관은 건축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곳일 뿐만 아니라 곡창지대인 호남지방의 곡물을 수탈하는 역사적인 현상이었다는 점에서 후대에게 교훈을 주는 곳이다.

